

전통을 살려가며 혁신하는 기업 광성씨알티(주)

고무를 전문 제조업체 광성CRT(주)는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이했다. 1948년 설립 이후 인쇄용 및 산업용 고무 롤러 한길만을 고집해온 광성CRT는 점차 다양하고 차별화된 롤러를 용도에 맞게 최상의 품질로 제공하면서 업계에 신뢰를 쌓았다. 각종 롤러 생산부터 매엽기, 상업윤전기, 신문윤전기, 비즈니스폼, 금속인쇄기에 소요되는 블랭킷, 잉크 등 기타 재료 판매까

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2021년부터는 120년 전통의 독일 SAUER(사우어)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롤러 기술을 한층 더 진화시켰다. 전통과 함께 혁신을 추구하며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광성CRT는 '미세한 차이가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임직원 모두가 고객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 광성CRT(주) 김원중 회장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광주로 사옥을 옮기며 새 도약을 준비 중인 광성CRT를 찾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초대 회장의 값진 기술 '인쇄를 역사의 시작'

오랜 세월 동안 '광성고무롤'로 잘 알려진 광성CRT는 인쇄용 고무롤로 창업하였으며, 지금까지 인쇄용 고무롤을 주력으로 생산함은 물론, 새로운 재질의 산업용 고무롤과 정교한 철심롤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김원중 회장은 긴 세월 동안 업력을 이어온 배

경으로 작고한 초대 김용주 회장의 힘이 컸다고 전했다. 당시 국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독보적인 기술 하나로 회사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광성CRT는 이후 계속해서 해외 기술들을 조금씩 국산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김원중 회장은 “초대 회장께서 평양 고무공장에서 배합 가공기술을 배운 뒤 전쟁 피난길로 대구에 터를 잡으셨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타이어 재생고무, 천연고무 기술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합성고무 기술이 있었다”면서 “등사기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 가격이 비싸

고무 호수를 잘라다 막 대기에 끼워 사용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재생고무를 쓰다 보니 오래 견디지 못했다. 업계 사람들은 우리기술로 개발할 수 없겠느냐며 많은 제의를 했고, 끝내 등사기에 사용되는 고무롤을 합성고무로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인쇄롤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자체 개발한 바이브레이터롤러, 업계에 큰 도움
오프셋 인쇄기에는 고무 롤러 사이에 경도가 높은 바이브레이터 롤



▲ 광성CRT(주)공장 내부 전경

러(Vibrator Roller)가 교차로 사용되어 잉크를 이겨주고 전달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바이브레이터 롤러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나 광성CRT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직접 개발한 특수 표면처리 기법으로 해외와 동등한 품질로 제작해 기존보다 낮은 가격과 빠른 납기로 다양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김선태 상무이사는 “인쇄물만 계속했다면 바이브레이터 롤러가 탄생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섬유나 제지, 제철 쪽 산업롤을 제작하면서 관련 기술을 조금씩 접목시키다보니 자연스럽게 고경도롤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바이브레이터롤은 독점기술의 수입 제품으로 해외 의존도가

가 높아 금액이 비싸고 납기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인쇄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광성CRT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크라이부르크의 파트너십을 통해 독일고무배합 기술로 최고의 라미네이팅 롤러도 생산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 지닌 SAUER와 동행

독일 3대 인쇄물 회사 중 하나인 SAUER는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창업자인 Paul Sauer(폴 사우어)의 뒤를 이어 Erich Sauer(에릭 사우어),

Horst Sauer(홀스트 사우어)가 차례로 가업을 승계한 뒤 현재 Alexander(알렉산더)가 4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 중이다. Alexander의 아들인 Benjamin Sauer(벤자민 사우어)는 5대째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1900년 베를린 설립 후 스웨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에 공장을 확장하고 현재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다. SAUER는 Koenig & Bauer(코닉 앤 바우어), Heidelberg(하이델베르크), Manroland(만로랜드) 등 유수의 인쇄기 업체와 함께 품



▲ SAUER 현지 공장 및 설비 모습



▲ DURAPRINT 제품

질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급 인쇄물 가공을 위해 광선CRT와 협력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알렸다. 국내 여러 업체 중에서도 광선CRT의 역사와 전문성, 생산력, 기술력을 인정해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김선태 상무이사는 “비전을 갖고 늘 해외 진출을 생각해왔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파트너를 찾던 SAUER와 접촉하게 되었다. 아무리 국내에서 롤을 잘 만든다 해도 독일의 원천기술은 그 자체로 매우 뛰어나다. 게다가 독일은 인쇄기와 관련한 모든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개발하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배울 것이 많다”고 전했다.

광범위한 기술을 토대로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SAUER는 15,000평 이상의 전 세계 통합 공장에서 생산되는 EUROGRAPHIC,

DURAPRINT(듀라프린트)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사우어에서는 EUROLAB 연구소를 운영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배합 기술로 범용, 겸용, UV, 알코올, 무알코올 등 각종 인쇄에 적합한 인쇄 롤러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신소재 엘라스토머

로 만들어진 DURAPRINT 롤러는 현재 코닉 엔

바우어 인쇄기 OEM 롤러로 선정되어 오리지널 롤로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 현재는 국내 상위 1% 인쇄 업체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나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으며 점점 확산되고 있다.

광선CRT는 SAUER의 고무 컴파운드를 국내에서 생산해 다양한 잉크 롤러와 댄핑 롤러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잉크 롤러에는 범용, 겸용 그리고 UV잉크 롤러가 있으며, 댄핑 롤러에는 알코올, 무알코올 그리고 자동 세척 롤러가 있다. SAUER 잉크 롤러는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댄핑 롤러는 탁월한 친수성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인쇄물의 혁명’ DURAPRINT 통해 기술력 UP

SAUER는 기나긴 연구 개발 끝에 신소재 ‘엘

라스토머'를 사용한 DURAPRINT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DURAPRINT는 범용, UV 그리고 겸용 인쇄에 따라올 제품이 없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인쇄물 '최대의 적'은 겸용 인쇄인데 일반 잉크와 UV 잉크 양쪽을 모두 동일하게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모든 잉크 모든 인쇄를 하나의 제품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최적의 인쇄 퀄리티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고무 롤러와 차원이 다른 내약품성과 세척 능력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수많은 인쇄기에 사용되는 등 정평이 나 있다. 인쇄 시 발생하는 종이 낭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롤러 세척액 사용량의 80%까지

절감하는 효과까지 발휘해 작업자들의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선태 상무이사는 "DURAPRINT는 독일 본사에서만 만들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 원료기술이 강한 독일의 환경을 바탕으로 사우어에서 자체개발한 신소재 인쇄물 제품으로써 타사 업체들이 시도한 우레탄 계열 롤러의 경우 발열 문제로 사용이 한정적이지만 DURAPRINT는 이 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DURAPRINT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단점은 본사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고비용 문제가 있다. 국내 상위 1%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우어의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국



▲ 사진 왼쪽부터 김선태 상무이사, 김원중 회장, 권순목 대표이사

내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국산화할 수 있을 것을 본다”고 전했다.

광성CRT만의 차별화된 강점 ‘인간중심 경영’

광성CRT는 인간중심의 경영을 통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놓았다. 대부분 직원들은 장기근속 중인 숙련기술자들인데 이토록 장기근속자가 많은 이유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권순목 대표이사는 “이번에 경기 광주로 이전했는데 1972년부터 오랫동안 회사가 성남에 있었던 관계로 직원들 거주하는 곳이 대부분 성남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교통비, 기숙사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중 회장은 “항상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회사만을 생각했다면 협력업체가 많은 곳으로 택했을 테지만 직원들의 편의를 더 생각했다”면서 “IC 근처로 교통입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전 회장님 때부터 이어온 철학이다. 코로나19 탓에 한동안 하지 못한 야유회나 운동회도 올해부터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품질 제품으로 매출목표 2배수 달성한다

광성CRT는 우수한 생산설비는 물론 기동성이 확보된 지역별 영업담당자 배치운동을 통해 고객사를 위한 빈틈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한 KNOW-HOW로

모든 고무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시켜 왔으며, 보다 우수한 인쇄 작업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성CRT는 안전한 생산 현장과 새로운 설비투자를 통해 양질의 고무롤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가 되고자 한다. 향후 3년간 매출 2배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히스토리나 각 기계 특색을 모두 기록해 통합 관리하는 등 상세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품을 만들고 사후 관리도 진행하며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원중 회장은 “인쇄시장은 관련 산업이 점점 축소돼 걱정이지만, 그래도 고급 인쇄시장이 남아 있다”면서 “여기에 걸맞게 우리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산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시장의 요구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도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인쇄 부문에서 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변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나름 국산화를 통해 인쇄나 포장 업계에 일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선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아쉽다”면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제조원가가 높아져 모두가 어려운 국면이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회사도 한 단계 도약했으면 한다”고 희망을 전했다.